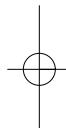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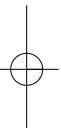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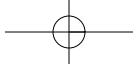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국립현대미술관

2020 가을 기획전

조선의 군사복식 구국의 얼을 담다

2020.10.22 ~ 2021.2.27

KYUNGWOON MUSEUM 경운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인사말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갑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운박물관이 준비한 2020년도 가을 전시는 크고 작은 전쟁의 시기별 변화에 따른 군사복식의 변천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2021년은 신미양요가 발발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미양요 때 실전에서 입었던 완전한 형태의 면제갑주를 연구·조사하려 경운박물관 박경자 부관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팀이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방문한 것이 벌써 2년 전입니다. 신미양요 노획품인 이 면제갑주를 국내의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면제갑주를 대여 받지 못하고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면제갑옷(등록문화재 제459호)과 재현한 면제갑주 일습입니다.

18세기로 추정되는 단갑주 細甲冑는 붉은색 용문의 비단 갑옷으로 갑옷 내부는 동銅판에 보문 寶紋을 요철로 찍어 아름답게 번뜩이는 보기 드문 갑옷입니다. 낡아 해진 부분마다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했을 장군의 비장한 정신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갑주는 원수급 갑옷으로 추정되는 붉은 전氈으로 된 것입니다. 용모양의 견철과 앞면에 오조룡, 뒷면에 호랑이가 금속으로 붙어 있어 촘촘하게 박힌 두정과 함께 위엄과 화려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이 솟아 오른 옥루와 오조룡, 봉황, 푸른 공작이 장식되어 정교함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투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명품으로 생각됩니다.

조선후기의 대표적 갑주인 피갑주 皮甲冑 3벌을 선보입니다. 이중 2벌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입니다. 갑옷 안에는 무겁고 딱딱한 가죽 편 片을 가득 달고, 갑옷 표면에는 연화만초문 蓮花蔓草紋을 연이어 찍은 이 피갑은 생과 사가 넘나드는 전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지킨 아름답고 당당한 갑옷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조선시대 무관 武官 최고의 복식 차림인 군복과 더불어 조선 중기 응복을 살펴볼 수 있는 황윤현 黃允獻 묘 출토 철릭과 담호를 복원하여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정묘호란의 안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남이홍 장군의 내갑용 녹피방령포를 재현하여 장군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께 회고합니다.

근대의 군복으로는 재현한 친군영 군복과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화된 서구식 군사복식을 보여드립니다. 무궁화와 오얏꽃으로 대한제국의 국격과 상징성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절체 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선조들은 몸을 바쳐 싸웠습니다.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조상들의 고군분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시원한 광복군의 방한복을 전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친필 휘호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합니다. 마지막 광복군이었던 장준하 선생에게 써주신 김구 주석의 서한도 보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주적인 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의 자취를 군사복식을 통해 조명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선조들의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전시가 군사복식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경인미술관,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장준하기념사업회 등 여러 기관과 개인 소장자님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수 경운박물관 관장



목차

8

갑주

당당하게 위엄을 뽐내다

36

신미양요

저절한 전투의 기억

50

웅복 군복

섬세한 주름에 숨겨진 민첩함

64

친군영 대한제국

힘겹게 끌어올린 마지막 열망



80

대한민국 광복군

나라 밖에서 뭉친 구국의 열정

90

유물목록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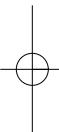
논고

박가영 | 조선을 지켜온 군사복식, 갑주(甲冑)

이민정 | 문양의 상징의미 고찰을 통한

조선 후기 면제갑주(綿製甲冑)의 재조명







조선의 군사복식

갑주 甲冑

당당하게 위엄을 뽐내다



『웅원필비』 皮胄 · 皮甲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자료제공

피갑은 조선후기 보병이 착용한 갑옷으로 사슴, 노루, 돼지 등 동물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철갑에 비해 방호성은 떨어지나 제작이 용이하며 가벼워서 전쟁의 필수 복식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옷의 양쪽에 갑찰을 배열한 후 옷의 바깥쪽에서 머리가 둉근 못인 두정^{頭釘}으로 고정시키는 두정갑 유형이 완전히 정착되고 일반화되었다.

조선후기 피갑주는 『웅원필비 戎埴必備』의 피갑주 도식과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웅원필비는 1813년(순조 13) 박종경^{朴宗慶}이 편찬하고 훈련도감에서 발행한 병서이다.





1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등길이 97cm 화장 61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두정으로 가죽 갑찰을 고정한 피갑이다. 뒷길에는 복두칠성 무늬로 두정을 박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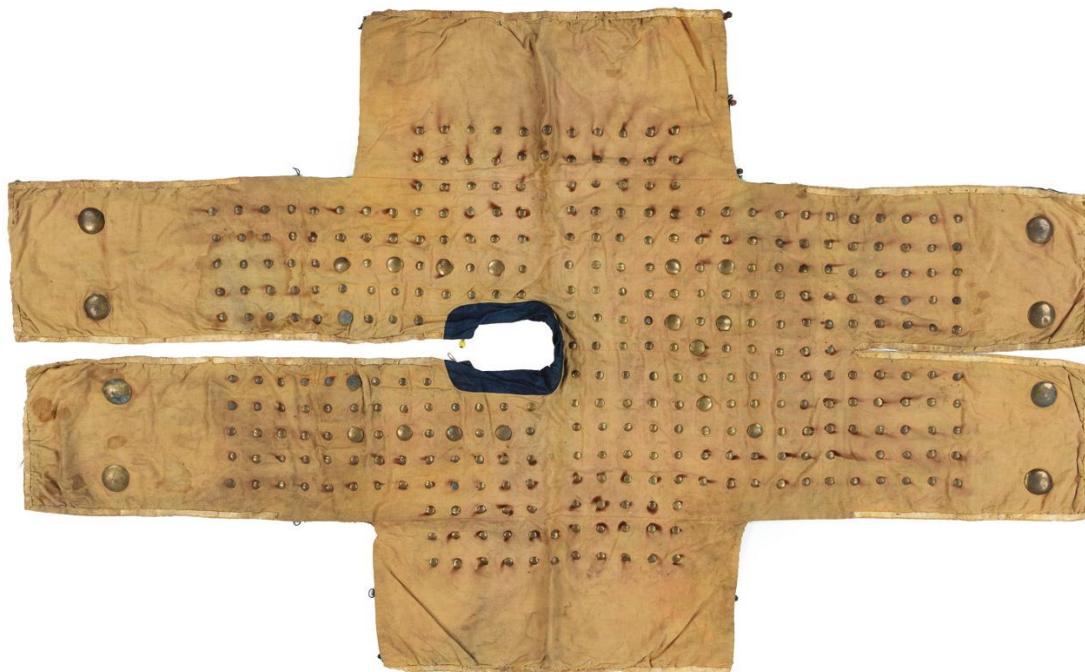
양 어깨의 견철 肩鐵 장식은 소실되었다. 갑옷의 형태는 등근 깃으로 되어 있고

앞 중심에서 여미는 합임 형태이다. 무가 없이 등술 하단에 트임이 있으며 배래와 엎솔기가 트여있어

십자형 十字形으로 펼쳐진다. 곁감과 안감은 모두 면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갑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안감으로 덮어 마감하였다. 수구와 설선, 트임 부분은 가죽으로 가선을 둘렀다.

갑찰을 고정한 두정의 크기를 달리하여 미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소매 끝 부분에 나무단추를 달고 매듭으로 고정하였다.



2

투구 胄

Helmet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높이 28cm 최대지름 23cm 드림 길이 25~26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금속 재질의 감투에 차양과 두정으로 감찰을 고정한
드림이 달려있으며 감투 안쪽에는 끈이 달려 있다.
드림의 걸감과 안감은 모두 면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가죽으로 가선을 둘렀다.







3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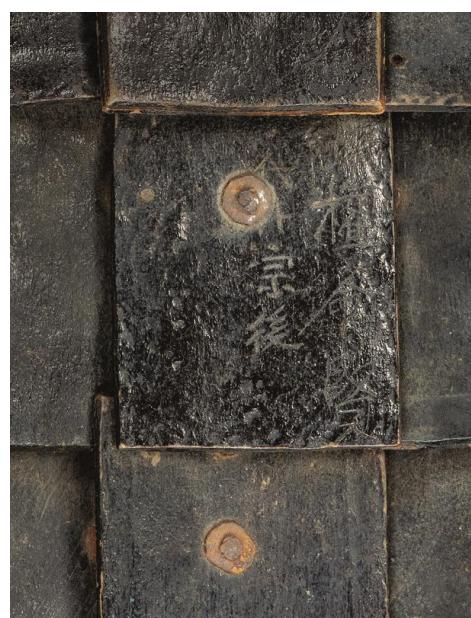
등길이 106cm 화장 49cm 피찰 6×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두정으로 가죽 갑찰을 고정한 피갑이다. 등근 깃에 가죽으로 가선을 둘렀으며 앞에서 여미는 합임 형태이다. 배래와 옆솔기가 트여있어 십자형 十字形으로 펼쳐지며 무가 달려있다. 걸감과 안감은 모두 면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걸감에는 연꽃과 넝쿨 무늬를 붉은색으로 인문 印紋 한 옷감을 사용하였다.
피찰은 부위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보인다.



어깨에 세마디로 분절된 견철이 있어 옷의 형태를 잡아준다.



소매 안쪽과 뒷길 피찰의 한 조각에 착용자로 추정되는 김치형 金致衡, 박종후 朴宗後, 권명현 權命賢의 이름이 쓰여있다.



4

투구 胄

Helmet

18~19세기

면 나무 금속

높이 31cm 최대지름 23cm 드림 길이 26~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무에 옻칠한 갑투는 금속 재질의 근철 筋鐵로 고정하였으며 차양이 달려있다.
드림의 갑찰은 두정으로 고정하였고 갑옷과 동일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5

목면피갑 木綿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Leather Plates

18~19세기

면 가죽 금속

등길이 104cm 화장 52cm 피찰 6×9.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목면피갑과 유사한 형태이나
겉갑의 연꽃과 넝쿨 무늬는 먹으로 인문印紋 하였다.
피찰은 부위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보인다.



양 어깨에 세마디로 분절된 견철이 달려있다. 안감에는 묵서가 있다.





6

첨주 簪胄

Helmet

조선

금속

높이 21cm 최대지름 31.5cm 양태 5.4~5.8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투구로 전체적으로 둥근 챙이 있다. 『세종실록』 133권 병기의
『설문說文』에 “도무兜鍪는 머리 갑옷(首鎧)이라고 한다. 쇠로써 만드는데,
둘레(簾)가 있는 것은 ‘첨주簾胄’ 라 하고, 둘레(簾)가 없는 것은 ‘원주圓胄’ 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7

단동갑 紺銅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Metal Plates

18세기 초반

총망단 寸蟒緞 능문면 繚紋綿 가죽 금속

등길이 109cm 화장 64cm 동찰 4.3×5.2cm

경인미술관 소장

옻칠한 적동 赤銅 갑찰을 두정으로 고정한 단갑이다.

동찰의 크기는 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양 어깨에는 용 모양의 견철 肩鐵 장식이 달렸다. 갑옷의 형태는 등근 깃에 기죽으로

가선을 들렀으며 앞 중심에서 어미는 합임 형태이다. 무가 달려 있으며 양옆과

등술 하단에 트임이 있다. 하단 트임 부분이 많이 상한 모습으로 미루어 막을 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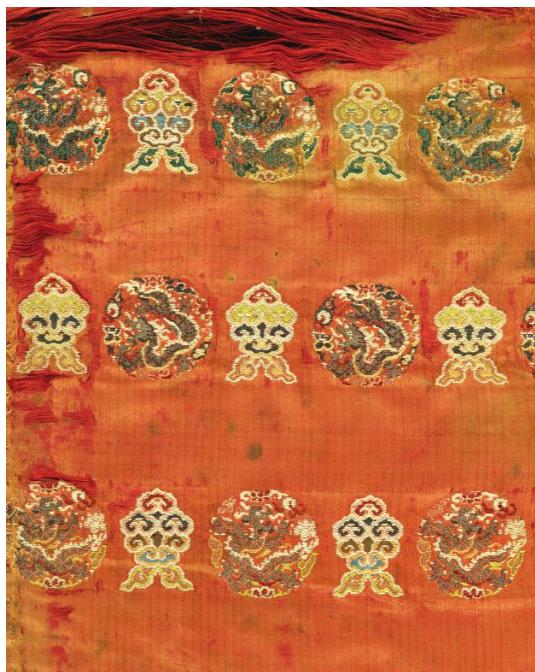
장수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 모양 견철은 두 마디로 분절되어 있다.





겉감은 경주자조직 바탕에 다채한 색사와 금사 金絲로 문양에 따라 부가문위를 조직한 위중조직이다.
무늬는 원형으로 도안화 된 용과 여의 如意 무늬가 한 줄씩 엇갈려 배치되었다.



김찰에는 호로 葫蘆, 전보 錢寶, 서각 犀角 등 8가지 보문寶紋을 양각으로 표현하였다.



8

투구 胄

Helmet

18세기 초반

총망단寸鱗緞 가죽 금속

높이 33cm 최대지름 23.7cm 드림 길이 26~27cm

경인미술관 소장

감투는 가죽에 옻칠을 하고 금속 재질의 근철과 이마가리개에 금색 무늬를 장식하였다.

차양이 달렸던 흔적이 있으며 드림에는 두정으로 금속 갑찰을 고정하였다.

드림의 걸감은 갑옷과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가죽으로 가선을 둘렀다.





9

전갑 鮮甲

Brass Studded Armor Lined with Metal Plates

19세기

모직 毛織 운보문단 雲寶紋綵 금속

등길이 107.5cm 화장 67.5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두정으로 금속 갑찰을 고정한 전갑이다. 겉감은 평직의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운보문단으로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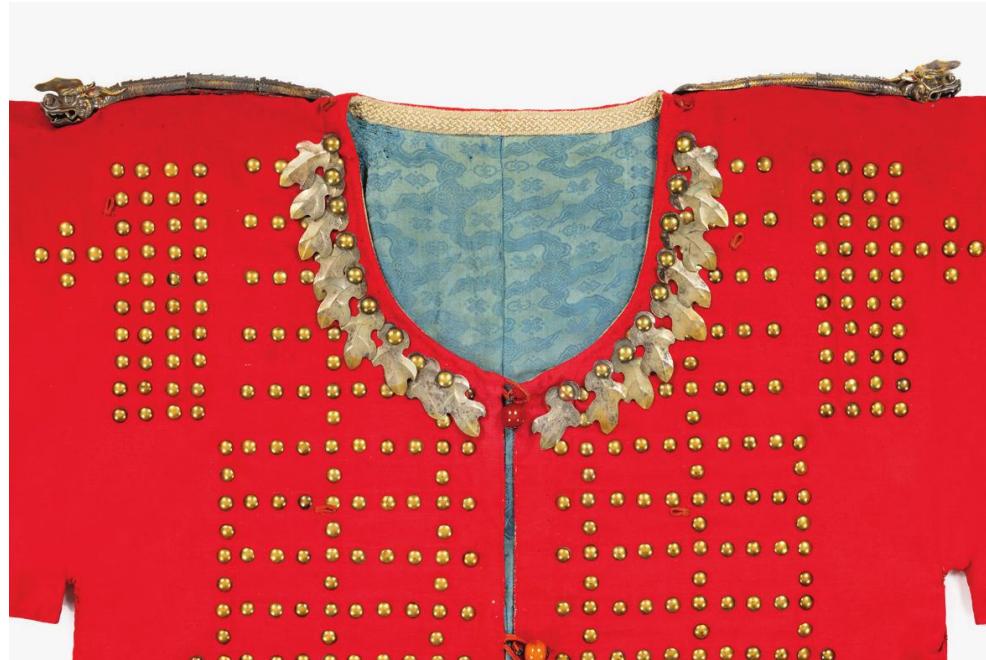
목 둘레에 금속 잎사귀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해준다.

양쪽 어깨에는 용 모양 견철을 달아 장식하였고 두 개의 밀화단추로 여미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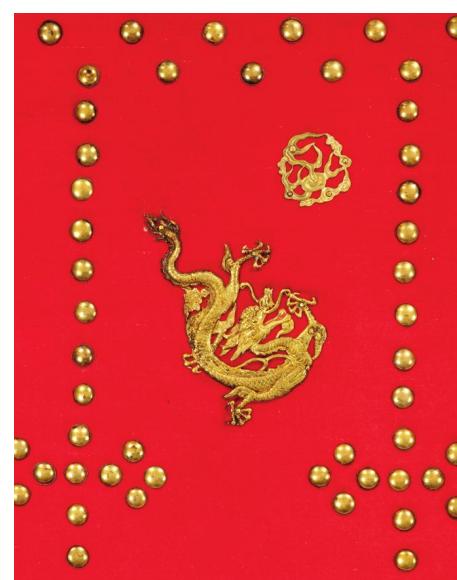
앞길과 뒷길에는 각각 오조룡과 호랑이 장식을 달았다. 배라는 도포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양옆과 등술에

트임이 있다. 무를 따로 대지 않고 폭이 넓은 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목선과 앞선, 도련에 모피로 가선을 둘렀던 자국이 있다.



전면에 용도를 알 수 없는 14개의 매듭고리가 있다.



여의주를 갖고 노는 오조룡



뒷면에도 15개의 매듭고리가 있다.



용 모양 건철, 네마디로 분절되어 움직이기 편하도록 하였다.



여의주를 갖고 노는 호랑이



운보문단의 푸른 안감이 학려하다.



10

갑주함 甲冑函

Case for Armor and Helmet

19세기

나무 금속

가로 74cm 세로 46cm 높이 50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투구와 갑의를 함께 보관하는 함이다.

나무에 옻칠을 하였고 방승문의 감잡이와 전보 만자 등이 투각된 사각의 앞비탕이 안정감을 주고 있다.





11

투구 胄

Helmet

19세기

보직 毛緝 운보문단 雲寶紋綵 금속 밀총 옥

높이 27cm 지름 20~21cm 드림 길이 31cm 간주 길이 27.5cm

아트앤크리에이티브 소장

감투 정면에는 오조룡이 마주보고 있으며, 뒷면에는 봉황이 마주보고 있다.

감투의 양 옆은 철보장식의 공작으로 장식하였다. 감투의 이마가리가 종양에는 옹이 투각되었고
간주 상단은 봉황무늬의 백옥으로 장식하였다. 붉은색 말총을 드리운 간주는 분리할 수 있다.

드림의 겉감은 평직의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운보문단이다. 드림은 두정으로 금속 갑찰을 고정하였다.

드림의 겉감은 갑옷과 동일한 직물이며 가장자리는 모피로 가선을 둘렀다.

투구 내모 內帽에 변색된 사용 흔적이 있다.



칠보장식의 공작